**가미노하마 해변 경로**

**서쪽의 파노라마**

**지역의 랜드마크와 아름다운 해변을 조망하며 절벽 정상에서 바라다보는 게라마 제도의 경치로 절정을 맞는, 자마미지마 섬 서쪽으로 가는 트레킹**

경로: 자마미항 - 가미노하마 전망대 - 자마미항

거리: 6km(왕복)

소요 시간: 80분

난이도: 쉬움

**개요**

이 워킹에서는 섬의 중심에 있는 자마미항에서 섬의 서쪽 끝인 가미노하마 해변까지 걷습니다. 길은 해안을 품고 있는 곳도 있고 내륙을 향해 조금 굽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섬의 주요한 해변 가운데 하나의 옆을 지나기 때문에 도중에 잠깐 수영을 하거나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자마미를 출발하여 서쪽의 아마 해변 방향으로 향합니다. 첫 랜드마크인 매릴린상에는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매릴린은 자마미에서 태어난 개로 매릴린의 사랑 이야기는 1980년대의 일본 영화 ‘매릴린을 만나고 싶어(영어 제목: Shiro and Marylin)’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상 근처의 호안은 석양을 즐기기에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10분 정도 더 걸으면 아마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 해변은 매우 얕아서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즐기고 싶다면(이 해변은 바다거북이 자주 오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만조 시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20분은 녹음이 풍요로운 시골의 분위기가 감도는 내륙 쪽을 걷습니다. 계속 걸어가면 이윽고 가미노하마 전망대가 있는 절벽 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남동쪽으로 도카시키지마 섬, 아무로지마 섬, 아게나시쿠지마 섬, 가히시마 섬, 남서쪽으로 신성한 구바시마 섬, 서쪽으로 야카비지마 섬, 그리고 북서쪽으로 도나키지마 섬을 조망하는 장대한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석양은 장관입니다.

**SUGGESTED PHOTO(S)**

1. View from Kaminohama (Hero image)

2. Road out of town

3. Marilyn

4. Ama Beach

5. Road between Ama and Kaminohama

6. Kaminohama